

# “역대 톱2” 코믹 영화 ‘극한직업’의 성공 비결



코믹 영화 ‘극한직업’ (감독 이병헌, 이병욱, 공동제, 영화사 헤그헌, 제작 CJ엔터테인먼트, 제작 CJ엔터테인먼트)이 역대 톱 2에

## 탄탄한 시나리오 기반 등 1400만 돌파

오르는 기세를 토했다. 개봉 전까지 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위로 오르게 된 것이다. 배우들과 감독, 제작진은 최근 흥행 감사 이벤트를 열어 성원을 보내준 관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극한직업’은 ‘신과 함께1-죄와 벌’ (감독 김용화, 2017)이 세운 1411만 1502명(영진위 제공)을 뛰어넘고 역대 톱두(TOP 2)의 자리를 차지한다. 역대 1위는 1761만 5437명을 동원한 ‘명량’ (감독 김한민, 2014)이다.

‘극한직업’이 16일까지 1418만 8087명(영진위 제공)을 동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탄탄한 시나리오가 기반이 됐다.

형사들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며 멋지게 범인을 잡는 모습을 강조했다. 이 영화는 결코 관객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했을 것이다. 식상하고 뻔한 캐릭터 설정과 이야기 서사를 깨고, 무능한 형사 반장(류승룡

분)부터 풀기 가득한 막내 신참(공병분)까지 독특한 경찰 5인방이 코믹 수사물의 재미를 이끄는 기본 요소가 됐다.

‘극한직업’의 시나리오를 쓴 배세영 작가는 tvN 예능 ‘SNL 코리아’의 시즌1부터 시즌3, 그리고 시즌9 등 빠르게 돌아가는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웃음 코드를 섭렵했다. 그녀의 능력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완벽한 타인’ (감독 이재규)을 통해 한 차례 입증된 바. 두 편의 흥행을 통해 이제는 중무로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작가로 거듭났다.

‘극한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위장 장엄한 마약거래를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수사극. 연출을 맡은 이병헌 감독은 이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통해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순도 100% 웃음을 선사했다.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 (감독 강형철)의 각색을 맡으며 영화계 데뷔한 그가 단편 ‘냄새는 난다’ (2009)의 각본연출을 시작으로 메가폰을 잡았다. ‘씨녀’ (감독 강형철, 2011)의 각색, ‘힘내세요 병헌씨’ (2012)와 ‘출출한 여자’ (2013)의 각본연출, ‘타짜 신의 손’ (감독 강형철, 2014)의 각색, ‘오늘의 연애’ (2015)의 각본을 맡으며 영화적인 토대를 쌓았다.

동명의 스타배우 이병헌과 구분할 정도로 이병헌 감독이 자신의 존재를 알린 작품은 코믹 영화 ‘스물’ (2015), 이후 웹드라마 ‘공정’이 체질 (2016)을 연출했고 지난해에는 ‘바람 바람 바람’ (2018)의 각색 및 연출을 맡기도 했다. 흥행에 실패한 ‘바람 바람 바람’이 반면교사로 작용했다.

앞서 여러 차례 밝혔듯 이병헌 감독은 ‘극한직업’에서 오로지 ‘웃음 사수’ 하나에 초점을 맞췄다. 코미디는 게 웃기려고 할수록 보는 이들에게는 웃음이 들기 마련인데, 이 감독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배우들의 오버스러운 연기를 지양했고 자연스럽게 상황에 집중했다.

류승룡을 필두로 진선규, 이하늬, 이병욱, 공병 등 배우 5인방이 이병헌 감독의 연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찰떡 같은 호흡을 맞췄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극한직업’이 이른바 빈집털이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비수기에 아무리 볼 국내의 신작들이 없다고 해도 아무 영화나 빈집털이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가 적절했다고 해도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관객들의 수준을 맞춘 어려운 일이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영화부터 시즌제 드라마까지 국내외 작품들을 다양하게 섭렵한 관객들이 좋은 영화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극한직업’의 작품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딱히 웃을 일이 없는 현대에 큰 웃음을 선사한 ‘극한직업’ 포탈장은 하나의 성과다.

## 금토극 ‘열혈사제’, 안방 사로잡다



시청률 18.3%, 전국 시청률 13.8%를 기록, 화려한 등장인물 3, 4회는 각각 8.6%, 11.2%를 기록하며 첫 방송에 이어 10%대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사제 김해일 (김남길)의 과격적인 행보와 출세 지향형 검사 박경선(이하늬), 바보 형사 구대영(김성균)의 조화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또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배우

SBS의 첫 금토드라마가 안방을 사로잡았다. ‘열혈사제’가 첫 주 방송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 다음 성적표 또한 기대케 만든 것. SBS 시청률 효과로 꼽혔던 ‘정글의 법칙’이 넘진 바통을 제대로 이어 잡았다.

지난 15일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박재범 극본, 이병우 연출)이 첫 방송했다.

이 드라마는 ‘굿닥터’ ‘신의 퀴즈 시리즈’ ‘김과장’ 등을 통해 필력을 입증한 박재범 작가, ‘추적자 THE CHASER’ ‘편지’ ‘넋속말’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병우 PD의 만남으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뚜껑을 연 ‘열혈사제’에는 박재범 작가의 해학과 이병우 PD의 연출력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여기에 김남길 이하늬 등 배우들의 차진 연기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충분했다. 그 결과 첫 방송에서 최고

들의 차진 연기는 이들이 펼쳐낸 다음 이야기를 궁금케 하기 충분했다.

8년간 금요일 밤 10시대를 지켜 온 ‘정글의 법칙’이 방송 시간대를 옮기고 새롭게 편성된 금토 드라마였기에 시청자는 드라마를 향한 궁금증을 방송국은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것이 사실. 첫 주 방송만으로도 모든 것을 충족시킬 작품임을 입증했다.

이는 믿고 보는 제작진에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시너지 효과. 방송 시간을 순삭해 버린 ‘열혈사제’는 금 토요일 안방 최강자의 등장을 감히 기대케 했다.

한편 ‘열혈사제’는 다혈질 기블릭 사제와 바보 형사가 실인 사건으로 만나 어영부영 공조 수사를 시작하는 익스트립 코믹 수사극.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 ‘신과의 약속’, 시청률 18.4% 자체 최고 기록...유종의 미



MBC 주말드라마 ‘신과의 약속’ ‘신과의 약속’ (극본 흥영희, 연출

이 마지막 회 시청률 18.4%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뛰어 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윤재문)은 18.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찍었다. 최고 시청률은 18.9%(수도권기준)이다.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마지막 회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영(한채영)은 아이들을 위해 나경(오윤아)에게 건소송을 취하였고 재욱(배수빈)과 나경은 이혼했다.

눈물을 쏟으며 준서(남기원)를 재욱에게 보낸 나경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뒤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20년전 재욱이 그랬던 이 번에는 어머니가 그를 막아섰다. 이후 나경과 어머니는 화해를 했고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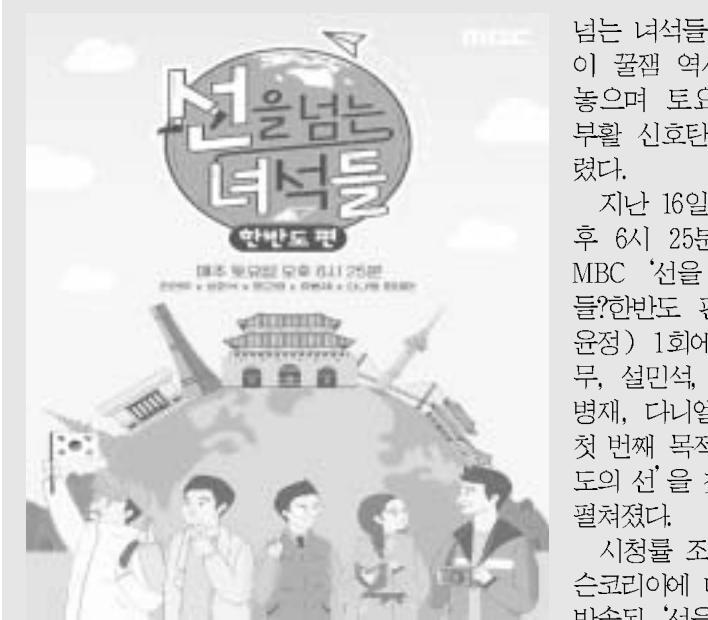
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함께 했다.

지영과 민희(이진희) 가족은 준서(남기원)와 함께 캠핑도 다니는 등 행복을 찾았다. 재욱은 사업 일선에서 물러난 상전(박근형)을 대신해 그룹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고, 재희(오현경)와 승훈(병헌)은 재욱에게 오랜 오해를 풀고 흔쾌히 재욱 밑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현우(왕석현)는 시력이 거의 회복되며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학교를 다니는 한편 상전의 집을 자연스레 왕래하며 한가죽처럼 지냈다.

나경은 물론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진정한 행복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 ‘선녀들’ 토예능 부활 신호탄...호평 속 시청률 순항 예고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유병재, 다니엘 린데만이 함께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이 끝낼 역사책을 펼쳐 놓으며 토요일 예능의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16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연출 정운정) 1회에서는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유병재, 다니엘 린데만이 첫 번째 목격자인 강화도의 선을 찾는 여행이 펼쳐졌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1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1부 5.5%, 2부 6.0%의 시청률

을 기록했다. 이는 전작 마지막 방송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이 동시간대 프로그램 평균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의 2049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으로 1부가 2.9%, 2부가 3.5%를 기록했고 1부는 동시간대 단독 1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1부와 2부를 합산한 2049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한반도의 선’을 넘는 여정으로 다시 돌아온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이들은 출정식에서 최종 목표를 ‘휴전선(군사분계선)’이라고 밝

히며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은 멤버들의 케미가 큰 화제를 모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승세를 기대하게 만든다. 토요일 프리뷰 시간대에 즐겨찾기, 분방 사수를 부르는 꼭차고 유익한 콘텐츠가 등장함에 따라 시청자들 역시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방송가에서는 토요일 저녁 예능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은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선들이 생기기 되기까지의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발로 터는 탐사예능으로, 전현무-설민석-문근영-유병재-다니엘 린데만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음력 1월 14일)



▶**경축** L, S, O 성씨는 막혔던 일이 조금씩 풀린다고 마음이 들떠 있다가 실수할까 염려된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조금이나마 생각하며 행동함이 좋을 수 있다. 2, 7, 11월생은 그대를 짝사랑하는 자 있다. 서, 북쪽 사람 조언 듣는다면 새롭게 힘이 솟을 듯.



▶**경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 잡으려다 둘 다 놓칠 듯.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금전관계는 서, 북쪽에서 들어오고 운이 열린다. 3, 4, 6월생은 인간관계 조심할 것. 투기에 신경 쓰는 것은 좋으나, 한 두 번으로 족하다.



▶**경향** E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만지는 금물. 육체나 마음의 병이 떠나지 않을 듯. 범, 용, 돼지띠와 인연을 맺고 사는 2, 9, 11월생이 특히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해 하는 것은 섬세함을 바라고 부드러운 대접을 받고자 하니 관심이 놓치지 마라.



▶**경계** G, B, O, T 성씨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다가 크고 다칠 수 있다. 지출도 많고 직업에 갈등이 심할까했다. 근신함이 좋을 듯. 형제간에 금전 거래는 심사숙고해라. 애정적으로 2, 7, 10월생이 부담되지만 도움도 크다. 속사정 털어놓을 것.



▶**경계**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내 것 가지고 장사하는 성격이다. 2·8·11월생은 성급히 처리하다 의견 충돌이 심할 수 있다. G, O, T, T 성씨는 차만에 빠져 기본대로 행하다 놀랄 일 생긴다. 자식에게 신경써야 할 듯.



▶**경계** 성격차이로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겠지만 다른 생각은 말라. 당신의 운명은 고독성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친분이 무너질 듯.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일수록 연행 조심함이 좋을 수 있다. 8, 9, 12월생은 침묵이 제일이다.



▶**경계** 현재는 힘이 들겠지만 서서히 좋아질 듯. 안 되는 것 무엇이 미련이 남아 잡고만 있는가. 2, 7, 8월생은 의류업은 변동해도 좋겠다. G, L, S, O 성씨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라.



▶**경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주저 말고 변동을 서둘러라. 쥐, 소, 닭, 개띠를 믿는다면 그의 뜻을 따라라. 조금만 기다리면 의외로 성과 있을 듯. G, L, T 성씨는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고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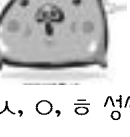
▶**경향** E이 자기의 신념도 굽힐 줄 아는 현명한 처세가 요구되는 때이다. 1, 4, 6, 11월생은 순간적 찬스만을 노리지 말라. 미래를 생각하고 처신하면 꺼지지 않는 햇불을 손에 들 수 있다. 돼지, 범, 닭띠의 눈치도 한 번쯤 생각할 것.



▶**경계** 무시했던 사람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겠다. 안면만 있던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마라. 2, 5, 7, 12월생, G, L, O, T 성씨는 반상에 짐이성찬이 있어도 자신은 못 먹고 남에게만 베풀어야 할 상황이다. 기회는 한번 뿐이다. 서쪽에 행운을 잡아라.



▶**경계** 하는 것 없이 지출이 많겠다. 2, 4, 9, 12월생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엔 멀리하는 게 좋다.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다. 소, 용, 양띠가 심적으로 도움을 줄 듯. 북,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결단이 필요함. 변동은 매대 건이 늦어지는 운이다.



▶**경계** 감언이설로 고생하지 말고 제 위치로 돌아가라. 4, 8, 10월생은 하는 일 안된다고 짜증만 내지 말라. 당신이 여자라면 머리를 짧게 하면 막혔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듯. B, S, O, T 성씨는 정중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말고 당신도 덕을 베풀어라.